



이근욱 & 조영희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면서 저희 소식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2 월 말에 이곳 세부에 도착하여 이미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이슬기 선교사님 부부 (KPM 소속)의 도움으로 정착하고 지금은 적응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면서 기도 가운데 마음에 품었던 몇가지 사역 중 주님께서는 현지인 교회 협력 사역과 의료사역의 문을 먼저 열어주고 계십니다.

만다웨교회: 이슬기 선교사님의 소개로 만다웨교회를 시무하시는 Alejandro (알레한드로)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공중보건학의 기초지식을 교회에 접목시켜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지역 사회에 좋은 증인이 되는 5 주 간의 Public Health applied to Church 코스를 제시했습니다. 목적은 현지인 교회가 스스로 일어서고 교회 문턱을 낮추어 복음을 듣고자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 제안에 알레한드로 목사님은 흔쾌히 동의 하셔서 5 월 3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23 명이 이 코스를 이수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두번째 사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세워진 만다웨 교회를 섬기며 세워드릴 다른 방법으로 5 월부터 이 교회 내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진료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교회에서 오픈하는 유치원의 아이들의 건강 관리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비전교회: 세부에는 바다의 집이라고 불리는 바자오 (Badjao) 족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랑비전교회 (Love Vision Church)를 담임하는 레드포드목사와 피터 부목사를 만나 만다웨 교회에 제시한 동일한 공중보건 코스를 설명하자 같은 종족들을 전도할 방법을 찾으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면서 이 코스를 강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현지 답사를 하기로 하고 이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세번째 사진)

본래 바자오 족은 물위에 집을 짓든지 배에 집을 지어 바다에서 생활하는 종족이나 세부에 정착한 이들은 매립된 바닷가 땅에 불법으로 판자집을 짓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진) 쌓여있는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심한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며 정부로부터 언제 쫓겨 날지 모르는 이들에게 의료해택이 절실해 저희가 5 월 15 일부터 매주 1 회씩 사랑비전교회 내 작은 방에서 진료사역을 시작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만다웨교회와 바자오족 사랑비전교회에서 시작될 공중보건학 강의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많은 교인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온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2. 두 교회에서 시작 될 의료사역도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 주시도록
3. 저희 부부의 건강을 늘 지켜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